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스무 번째 숫자

둘째 화 — 제칠부 — 에스겔

Jeff Pippenger

2026-07-29

에스겔 선지자가 그 첫머리 구절들에서 서른 살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해이다.

이제 삼십 년째 되던 해, 넷째 달, 그 달 초닷셋날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이상들을 보았더라. 그 달 초닷셋날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다섯째 해라. 여호와와 말씀이 갈대아인의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분명히 임하였고, 거기에서 여호와와 손이 그 위에 있었더라. 에스겔 1:1-3.

어떤 이들은 “제삼십 년”이 특정한 희년 주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데, 그 주기는 요시아 왕과 함께 시작하여 사십 장 첫 절에서 끝난다고 본다.

우리의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그 해의 시작 곧 그 달 열째 날, 성읍이 함락된 후 십사 년 되던 바로 그날에 여호와와 손이 내 위에 임하사 나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니라. 에스겔 40:1.

성경 연대학자들은 제40장 1절의 날짜를 기원전 573년 4월 28일 혹은 10월 22일로 본다. 모든 선지자는 마지막 때를 지목하므로, 기원전 573년 10월 22일이라는 가을의 날짜는 기원전 622년 5월 5일, 이른바 “요시아의 대유월절”에서 50년 전에 시작된 한 선의 오메가 날짜이다.

삼십이라는 수는 제사장들이 봉사를 시작할 때에 서른 살이어야 했음을 상징한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이 에스겔의 나이를 서른으로 밝히는 것이든, 혹은 단지 그를 제사장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것이든, 그는 역시 서른 살로 표상되었을 것이다. 만일 1절의 삼십 년이 다른 이들이 믿는 바와 같이 기원전 622년 요시아의 위대한 유월절 이후 삼십 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해도, 그 예언적 함의는 여전히 동일하다.

요시아는 “기초”를 의미하며, 그의 위대한 유월절은 기원전 573년 속죄일인 10월 22일에 끝난 희년의 기간을 시작하였다. 요시아로부터 10월 22일까지의 “희년의 선”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와 일치한다. 1840년의 기초들은 요시아 왕에 의해 표상되었고, 또한 조시아 리치에 의해서도 표상되었다. 10월 22일은 속죄일의 뿔나팔과 함께 희년의 나팔의 뿔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표상되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곧 칠 년이 일곱 번이라. 그 일곱 안식년의 기간은 네게 사십구 년이 될지니라. 그 후 일곱째 달 열째 날에 너는 희년의 나팔을 불게 할지니, 곧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에 두루 나팔을 불게 할지니라. 레위기 25:8, 9.

에스겔은 요시아 왕으로부터 10월 22일에 이르는 희년의 계열 안에 놓여 있으며, 이 계열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요한계시록 10장의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를

대표한다. 에스겔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밀러파를 대표하며, 셋째 천사의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에스겔은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 직분을 대표하지만, 그의 주된 예언적 속성은 그가 선지자라는 데 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서른 살에 봉사를 시작한 성경의 인물이 세 사람 있다. 에스겔과 더불어 다윗과 요셉이 그러하다. 그들이 모두 서른 살에 봉사를 시작하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제사장이다. 다윗은 왕의 상징이요, 요셉은 제사장이며, 에스겔은 선지자이니, 이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루어진 영광의 삼중 왕국 안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 에스겔을 어떻게 상징으로 적용하든지, 그는 제사장이다. 그리고 요시아로부터 10월 22일까지의 희년의 계보에 적용될 때, 에스겔은 제사장이며, 그는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와 기원전 573년 요시아 왕으로부터 10월 22일까지의 역사로 예표된 바와 같이, 십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에 한 제사장을 대표하게 될 것이다.

스물둘

성경은 에스겔이 이십이 년 동안 사역하였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십이”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기치인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요시아의 유월절로부터 사십 장의 10월 22일 희년에 이르기까지로 표상된 역사에서, 요시아의 유월절은 1838년과 1840년에 있었던 조시아 리치의 사업을 예표하였다. 그 사업은 첫째 화와 둘째 화의 때에 관한 예언들을 제시하는 일이었다. 이제 첫째 화와 둘째 화의 예언이 선구자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였음이 드러난다.

성경의 예언자 에스겔은 그의 기록에서 다른 어떤 성경 저자보다도 더 구체적인 날짜들을 제시한다.

에스겔은 성경 예언에서 하루가 일 년과 같다는 원리의 오메가이다. 민수기에서는 하루-일 년 원리의 알파적 언급이 가데스에서의 첫 번째 반역으로 나타나며, 그 반역은 광야에서의 사십 년 유랑을 초래하였다. 마지막 곧 오메가적 반역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에스겔 4장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알파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대로 사십 일,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약속을 저버림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나를 거슬러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될 것이며 거기서 죽으리라. 민수기 14:34, 35.

오메가

너는 또 네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그 위에 담당하라. 네가 그 위에 누워 있는 날수대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헛수를 날수에 따라 네게 정하였음이니, 곧 삼백구십 일이라. 그리하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마친 후에는 다시 네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사십 일이라. 내가 네게 하루를 일 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을 향하여 두고, 네 팔을 드러내며, 그것을 향하여 예언할지니라. 에스겔 4:4-7.

가데스와 예루살렘의 멸망은 1일 1년 원칙을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의 반역을 표상한다. "1일 1년 원칙"은 밀러파의 주된 규칙이었으며, 요시아 왕의 희년 노선으로부터 10월 22일까지 예표된 바와 같이, 1840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역사에서도 그러하였다. 에스겔은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날짜들을 제시한다. 에스겔의 연대기 안에서 희년의 노선이 확인되며, 이로써 에스겔의 증언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에 직접 연결되고, 그 후에는 셋째 천사의 역사에도 연결된다.

"희년의 선"과 더불어 에스겔은 삼백구십 일 동안 그의 옆으로 누워 있고, 그 후 사십 일 동안 다른 옆으로 누워 있다. "사백삼십"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상징이니, 애굽에서 사백 년 동안 포로 됨에 대한 아브람의 언약적 약속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삼십 년의 둘째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함께하여, '옛것'의 아브람(후에 아브라함)과 '새것'의 사울(후에 바울)은 그들의 증거를 결합하여 사백삼십 년을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확립하였다. "삼백구십 일" 동안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사십 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함께하여 오른쪽과 왼쪽은 아브람과 바울과 같다.

언약은 언제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곧 생명이나 사망이나를 기초로 하였다. 밀러파의 역사에서 1일-1년 원칙은 생사에 관한 쟁점이었으며, 그 역사는 첫째 천사에 의해 영원한 복음으로 선포되었다. "복음"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밀러파 역사에서 생사에 관한 시험의 쟁점은 하루가 1년에 해당한다는 원칙의 문맥 안에 놓여 있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부여한 예언은 둘째 화에 대한 391년 15일의 예언이었다. 에스겔이 그의 왼쪽 옆으로 누워 있었던 390일 안에는 둘째 화에 대한 391년 15일의 시기 예언에 대한 예증이 담겨 있다. 그 예언을 바르게 나누기 위해서는 예언적 분별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다른 아님 유다 지파의 사자가 한밤중의 부르짖음의 기별을 인봉 해제하시는 계속적인 사업이다.

나는 에스겔이 반드시 십사만 사천의 상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예언의 영의 은사의 상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말일의 선지자의 나타남으로 표상되든, 혹은 한 줄에 한 줄을 더하는 방법론의 원리를 이해하는 언약의 백성의 나타남으로 표상되든 그러하다.

나는 에스겔이 비추는 삼백구십일 년 열오일의 예언에 대한 빛이, 그 먼지 털이개를 든 사람이 그 보석들을 더 큰 궤 속으로 던져 넣는 것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에스겔로부터 오는 빛이 성전이 완성될 때 최종 결론의 기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에스겔은 제40장 1절에서 10월 22일에 이르러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미래 성전에 대한 이상이 에스겔에게 주어진다. 그 성전은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며, 에스겔은 그 수의 표상이다. 그 무리는 셋째 시험이자 리트머스 시험에 이르기 전에 이미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을 것이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그의 빛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러므로 그가 산출하는 빛은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엘 10장과 일치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임하는 빛을 나타낸다.

인봉이 풀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은 은혜의 기간이 마치기 직전에 열리게 된다.

또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11절에서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 직전의 “때가 가까우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그때에 봉함이 풀리니, 이는 “때가 가까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1-3.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은혜의 시기는 일요일 법령에서 마쳐지며, 재림교는 에스겔 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표상된다. 거기서 그 땅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 인치는 일은 이슬람의 동풍이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을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기 직전에 이루어진다. 에스겔 8장에서는 재림교의 네 세대가 결론에 이르며, 넷째 세대는 해를 향하여 절하는 스물다섯 지도자로 상징된다.

그 이상은 일요일 법령 바로 하루 전, 곧 유예 기간의 마감 직전에 상징적으로 주어졌는데, 이는 여섯, 여섯, 여섯으로 표상된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초닷새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여호와와 그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셨다. 그때에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의 한 모습이 있는데, 그의 허리 아래로는 불의 모양이었고, 그의 허리 위로는 광채의 모양, 곧 호박빛 같은 모습이었다. 그가 손의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털 한 가닥을 잡으시니,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되, 북쪽을 향한 안뜰 문의 입구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질투를 일으키는 질투의 우상이 있는 자리였다.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으니, 내가 들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았다. 에스겔 8:1-4.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닷새의 환상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마감될 때, 곧 일요일 법의 상징인 ‘666’ 직전에 임하였다. 그 환상은 에스겔이 “들에서 본 그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 그가 들에서 본 환상은 앞선 제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하여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보라, 여호와와 영광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과 같았으므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 3:23.

“들”의 이상, 곧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닷새의 이상은 에스겔이 이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이상이었다.

이제 제삼십 년,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니라. 에스겔 1:1.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하나님의 환상들”은 평지의 환상이었으며, 또한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이기도 하였다. 그 환상들은 에스겔이 성소 안을 들여다보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10장의 “마라” 거울 환상이 성취된다. 에스겔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날 때, 지성소로부터 발하는 예언적 빛에 참여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우리가 유월절로 시작하여 10월 22일에 끝나는 요시야 왕의 희년의 선을 식별할 때,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제시된 봄 절기들과 가을 절기들의 상징을 식별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봄 절기들과 가을 절기들은 각각 스물두 절씩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에스겔의 사역이 스물두 해 동안이었던 것과 같다. 에스겔을 희년의 선의 서른째 해에 맞추는 것은 에스겔의 출생을 요시야의 부흥에 맞추게 한다. 그가 희년 주기의 서른째 해에 서른 살이었다면, 에스겔은 요시야의 개혁 때에 태어났을 것이다.

에스겔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의 상징이다.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인간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전개를 나타내는 바퀴 안의 바퀴들을 보게 된다. 요한계시록 10장의 요한과 같이, 에스겔은 밀러파를 상징하지만, 더욱 직접적으로는 십사만 사천을 상징한다. 그와 평행을 이루는 삼백구십일 년과 십오 일의 시간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라오디게아 재림신앙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며, 거기에는 삼십팔과 사십의 수수께끼도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사백삼십 년의 상징성을 포함한다.

그것에는 1333년부터 1337년까지, 1449년부터 1453년까지, 그리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로 나타난 4년의 기간이 포함된다.

이 지극히 중요한 주제에 대한 우리의 고찰은 다음 글에서 시작하겠다.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진 이상들 속에서 우리는 하늘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큰지를 본다.” 『교회증언』 제5권, 753.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의 주이셨다. 그분께서 그것을 떠나실 때, 그 영광도 떠날 것이었다—곧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희생 제물의 피(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예표하는 것)를 가지고 들어가 제단 위에 뿌리던 지성소의 시은좌 위에 한때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그 영광이다. 이것이 곧 쉼키나, 여호와의 가시적 장막이었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더라”[이사야 6:1-8 인용]라고 그가 말할 때, 이사야에게 계시된 것은 바로 이 영광이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4권, 1139.

이사야에게 주어진 이상은 마지막 날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믿음으로 볼 특권을 받았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들이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고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한 입술을 지닌 백성, 곧 그 입술로 자주 허탄한 말을 해왔고 그 재능들이 성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한 백성임을 깨닫는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순결함과 사랑스러움에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대조할 때 절망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이 이사야처럼 주께서 그 마음에 새기고자 하시는 감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낮춘다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약속의 무지개가 보좌 위에 있으며, 이사야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 그들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크고 엄숙한 역사의 목적은 하늘의 공간을 위하여 곡식단들을 함께 거두어들이는 데 있다. 이는 땅이 여호와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연한 악을 보고 더러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다 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말라. 흑암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대오를 갖추어, 사탄이 마지막 큰 투쟁을 위하여 그의 군대를 소집하고 그의 권세가 크고 거의 압도적인 것처럼 보일 때, 약속의 무지개로 둘러싸인 높이 들린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광경은 위로와 확신과 평안을 줄 것이다.” Review and Herald, December 22, 1896.

그날 강 가에서 에스겔은 북쪽에서 오는 듯한 회오리바람을 보았다. 곧 “큰 구름과, 스스로 감기는 불과, 그 사방의 광채이며, 그 가운데서 호박 같은 빛이” 있었다. 서로 교차하는 여러 바퀴가 네 생물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위 높은 곳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그 위에” 있었다. 또 “그룹들 가운데서 사람의 손의 형상이 그 날개 밑에” 나타났다. 에스겔 1:4, 26; 10:8. 그 바퀴들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처음 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였으나,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는 손에 의하여 붙들리고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존재들이 이 바퀴들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 위 남보석 보좌에는 영원하신 분이 계셨으며, 보좌 둘레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표상인 무지개가 있었다.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의 인도하에 바퀴 같은 복잡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사의 복잡한 전개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라들의 다툼과 소란 한가운데서도 그룹들 위에 앉으신 그분께서는 여전히 세상사의 일을 지도하신다.

차례로 각기 자신들에게 할당된 때와 자리를 차지하였던 여러 나라의 역사, 곧 그들 자신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의식중에 진리를 증언하였던 그 역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오늘날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한 자리를 지정해 두셨다. 오늘날 사람들과 나라들은 실수가 없으신 분의 손에 들린 다림줄에 의해 측량되고 있다. 모두가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위대하신 자존자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지나간 영원에서 다가올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사슬에 고리마다 고리를 이어 표시해 두신 역사는, 시대의 행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장차 올 때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모든 것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페이지들 위에 그 자취를 남겨 왔으며, 아직 오지 아니한 모든 것

역시 그 차례를 따라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Education, 178.